

학교외 평화교육에 대한 각국의 사례 비교

- 미국, 이스라엘, 독일을 중심으로 -

양진건*

목 차

- I. 서론
- II. 각국의 학교외 평화교육의 사례
- III. 사례의 교훈과 시사

I. 서론

본고에서는 학교외(out of school) 평화교육에 대한 미국, 이스라엘, 독일의 사례를 비교해 봄으로써 궁극적으로 “세계평화의 섬”을 실현하려는 제주도에 대한 적용가능성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제주도의 학교외 평화교육은 이제 비로소 시작하고자 하는 단계지만, 외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다. 따라서 외국의 학교외 평화교육의 내용과 방법론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세계평화의 섬을 실현하려는 제주도에 적용가능성을 진단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1999년 헤이그 평화회의(the Hague Appeal for Peace)는 평화교육을 21세기 평화운동의 과제 중 하나로 설정하여, 각 국에서 의무화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평화교육의 목적은 평화적 문제해결을 위해 태도와 행동을 변화시키는 데 있다. 평화교육은 비단 폭력적인 사회와 폭력이 위협적으로 존재하는 곳에서만 실시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교양교육의 맥락에서 모든 국가, 모든 사회의 공

*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교수

식·비공식 영역에서, 어린이로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 내용과 방법이 개발되어야 한다.

평화교육은 편의상 어린이나 청소년 등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학교 평화교육과 성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학교외 평화교육으로 대별해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구분은 그 대상에 따른 편의적인 것일 뿐 평화교육을 바라보는 방법적 측면에서는 동일한 양식이다. 평화교육을 바라보는 두 가지 방법은 첫째, 사회의 중요한 문제와 경향(trends)에 초점을 맞추고, 적극적 평화를 향상시키는 장기적이고도 광범위한 기반을 갖춘 프로그램의 실시, 둘째, 구체적인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고 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다 집중적인 활동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따라서 학교 평화교육과 학교외 평화교육은 서로 구별되는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는 서로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

본고에서는 대표적인 분쟁지역인 이스라엘,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갈등과 화합을 이루어내는 미국, 그리고 동서독 분단을 극복하여 통일을 이룩한 독일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각국의 갈등과 분쟁은 매우 다르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각기 다른 인종과 종교를 바탕으로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 불평등과 더불어 심각한 무력분쟁이 현재까지도 진행되고 있다. 독일은 분열과 분리를 넘어서 통일과 통합을 이루어 내었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나, 각기 독특한 경제·사회·문화적 통일과 통합의 과제를 가지고 있다. 미국은 다양한 차원의 폭력이 사회적으로 만연함으로 인해 폭력과 갈등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평화교육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미국, 이스라엘, 독일의 평화교육을 통해 어떻게 다양한 분쟁과 분열을 극복하고 화해와 통합, 통일을 이룩했는가를 이해함으로써 “세계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제주도의 학교외 평화교육에 보다 구체적 내용과 방법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외국의 학교외 평화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고, 이들의 사례를 통해 어떤 공통점 혹은 문제의식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인지, 어떤 방법론을 제주도의 학교외 평화교육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인지, 그 과정에서 어떤 점들이 개선되어야 할 것인지 등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해 보았다.

II. 각국의 학교외 평화교육의 사례

1. 미국

현재 미국의 학교외 평화교육은 갈등해결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 가운데 하나가 미국친우봉사회(American Friends Service Committee)의 HIPP(Help Increase Peace Program)이다. 미국에서 갈등해결 프로그램이 발전한 것은 기본적으로 사회에 만연된 폭력문제 때문이다. 공동체에서 벌어지는 폭력과 살인은 이제 미국사회의 일부가 되어있는 형편이다. 많은 사람들이 폭력에 대해 폭력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가는 상황에서 갈등해결 프로그램은 갈등의 평화적 해결을 추구하는 대안적 방법으로 발전되어 현재 미국사회에서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

갈등해결 프로그램에서 갈등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갈등을 폭력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갈등을 통해서 다름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갈등해결 프로그램의 궁극 목적이다. 이를 통해 폭력적 갈등해결의 승리와 패배(win-lose)가 아닌 갈등 당사자들의 건설적이고 창조적인 문제해결을 통한 양자의 승리(win-win), 즉 상생적 갈등해결을 지향하는 것이다. 갈등의 해결이 건설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폭력적 갈등 당사자들 모두가 평화적 갈등해결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갈등해결의 지향점이다.

1-1. AFSC의 HIPP

미국친우봉사회(AFSC)가 갈등해결과 동시에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HIPP¹⁾은 미국사회의 갈등과 폭력을 유발하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에 대해 청소년들이 올바른 관점을 형성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모색을 다양한 워크숍을 통해 훈련한다. 이 프로그램은 물리적 폭력을 줄이고 갈등을

1) www.afsc.org.

HIPP 프로그램 매뉴얼(1999년도)

Karin Lee, "평화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접근과 AFSC의 평화교육."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주최, 「21세기 한반도 평화·통일교육 방법론과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국제 심포지움」(2000년11월 17일) 자료집

해결할뿐더러 갈등의 평화로운 전환을 통해 정의로운 사회건설까지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학교외 평화교육의 특징을 갖고 있다.

1) 폭력·갈등·인종차별과 HIPP

HIPP은 폭력을 대항폭력으로 대응하기보다는 건설적 대안이 있음을 알려주고, 폭력에 대한 대응과 더불어 편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적극적 사회변화를 위한 주체가 될 희망으로 참여자들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폭력에 대한 대안을 선택하기 위한 모델을 제시하고 이를 역할극을 통해 훈련한다. 이런 훈련들에는 자기 긍정을 유도하고, 무감수성이 얼마나 문제를 악화시키는가에 대해서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폭력과 편견 등의 문제에 대한 진지한 대화, 모두를 승자(win-win)로 이끄는 활동과 협동과 의사소통을 복돋우는 게임 등을 내용을 가지고 있다. HIPP은 참가자들의 마음 속에 폭력 이외의 다른 대안이 있음을 깨달아 이를 확신하도록 하고, 폭력을 배우듯이 대안 역시 학습을 통해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것이다.

갈등을 바라보는 HIPP의 철학은 그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것이다. 갈등을 통해서 다름을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다. 그러나 HIPP은 단순한 갈등해결 프로그램이 아닌 일종의 사회운동가 활동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어떠한 교육도 중립적이지 않으며, 우리가 사회정의에 대해 가르치는 교육적인 경험을 제공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있다고 믿는다.

예를 들어 인종차별주의(racism)에 대해 배울 때 젊은이들은 먼저 인종차별주의의 역사에 대해서 배운다. 다음으로 인종문제에 대한 참여자 각자의 경험을 나누고, 인종차별주의가 무엇인가에 대해 토론하고 그들의 경험과 관찰에 따른 목록을 함께 작성하고 일련의 역할극을 통해 인종차별주의에 도전하는 연습을 하게 된다. 역할극에서 참여자들은 인종차별적 농담, 친구가 던진 인종차별적 언사, 아이들을 제압하는 경찰에 대한 대응, 그리고 인종차별적 언어의 사용에 대해 어떻게 이의를 제기할 것인지 생각해 보라고 그룹에게 요구한다. 이를 통해 HIPP은 인종차별주의에 대항하는 좋은 의견들을 함께 만들어내는 것을 돕는다. 여기에서 정해진 올바른 해답 혹은 틀린 답이 있기보다는 중요한 것은 이같은 상황에서 토론하고 생각하는 기회를 갖는다는 것이다.

2) 비폭력(nonviolence)과 HIPP

HIPP의 출발점인 두 개의 전제는 ① 갈등은 모든 인간의 상호작용에 있어서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반드시 파괴적일 필요는 없으며, 대신에 적극적인 변화와 성장을 유발할 수 있다. ② 사회적 불의가 심각한 폭력적 갈등 배후의 원인으로 놓여져 있다는 것 등이다. 따라서 비폭력을 향해 첫째, 갈등에 대한 태도의 변화, 둘째, 폭력의 뿌리인 불의의 문제 다루기 등 두 방면에서 접근하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폭력에 둘러싸여 자라나고, 폭력과 힘의 오용을 갈등에 대한 정상적이고 효과적인 반응으로 인식하는 것을 배운다. 폭력이 갈등에 대한 유일하게 가능한 선택안처럼 보이는 상황에서, HIPP 진행자의 주요 역할은 사람들이 갈등상황에서 다양한 대응방법을 가질 수 있다는 인식을 길러주는 것이다. HIPP은 갈등이 회피될 필요가 없으며, 폭력으로 치달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가르쳐준다. 대신 직접적으로 또한 건설적으로 다루질 수 있다.

비폭력은 단지 마음의 상태나 폭력에 대한 태도의 측면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사람들을 격하시키거나 억압하는 세력이나 상황을 변화시키고자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노력이다. 또한 폭력을 그 뿌리로부터 다루고자 하는 노력이다. HIPP은 불의를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공동체가 함께 모여 변화를 위한 자원을 서로 구하는 데 있다고 본다. 이러한 불의 극복을 위한 풀뿌리 차원의 접근은 변화가 공동체가 함께 모일 때 가능하고 각 사람이 이 과정에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1-2. HIPP 워크샵 방식

HIPP은 전통적 교육방식 보다는 대화와 적극적 학습을 중심으로 능동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참여 프로그램이다. 모든 참가자가 주로 원으로 둘러앉아서 모두 번갈아 가며 말하는 쌍방향의 활동에 참여한다. 이로써 참가자들은 중요한 사실을 배우면서 자신만의 고유한 의견과 감정을 고려하게 된다. 이들이 워크샵에 적용되면 그 프로그램이 재미있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서로에 대해 많이 배우게 되기 때문이다.

3일간의 워크샵(12-18시간)과 후속 워크샵을 통해 참가자들은 비폭력적으로 갈등에 대응하는 기술을 기르고, 사회의 부정의가 그들과 다른 이들의 삶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다. 또한 긍정적이고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개인과 사회의 변화를 위해 행동하는 방법을 배운다. 참가자들은 3가지 워크샵 (기초편, 고급편, 훈련편)을 완성시킬 기회를 가지게 되며, 이를 통해 스스로 HIPP 워크샵 진행자(facilitator)가 된다 후속프로그램을 통해서 참가자들은 개인적, 사회적 변화를 마음속에 그리기 시작하고, 결국 변화를 위한 행동을 취하게 된다.

1) HIPP 워크샵 장소와 참여자

워크샵은 학교, 지역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청소년 구류소, 대학, 방과후 프로그램, 폭력방지 프로그램 등에서 실시된다. 한편, HIPP은 어린 엄마들, 학교 자퇴자, 학교에서 쫓겨난 청소년들, 갭단의 멤버들에게도 인종과 계급을 초월하여 실시되고 있다.

2) HIPP 워크샵의 초점: 3H(Head, Heart, Hand)

- ① Head : 참여자들은 폭력의 원인을 분석하고 선택방안을 모색해 본다.
- ② Heart : HIPP 워크샵은 웃음, 재미, 경험의 공유, 자기 인식, 공감, 청취 기술 등을 통해 공동체를 건설한다.
- ③ Hand : 참가자들은 협동, 의사소통, 갈등해결을 직접 다룰 수 있는 기술을 발전시킨다.

3) HIPP 워크샵의 중심주제

- ① 폭력에 대한 대응방안
- ② 인종차별주의와 '편견 다루기'와 사람들의 '차이'와 '다름'
- ③ 적극적 사회변화를 이룩하기 위해 공동체에 각자 참여할 수 있다는 믿음

4) 워크샵을 통해 배우는 가치와 기술

- ① 긍정, 의사소통, 협동, 갈등해결, 편견 줄이기 등

5) HIPP 시리즈

- ① 협의와 훈련(consultation & training) : HIPP을 시작하거나 주관하는 사람/단체를 위해 예비적으로 개요를 설명한다.

② 소개 워크샵(1-2시간) : 프로그램을 설명하고 사람들이 이해하고 그룹 다이나믹스를 경험하도록 도와준다.

③ 3일간의 워크샵 : 기초, 고급, 훈련자 훈련 등의 3단계가 개별적으로 진행된다. 참여자의 나이에 따라 변형시킨 접근방식이다.

④ 후속 프로그램 : 위의 프로그램들을 마친 후 HIPP 실무자들이 학교와 공동에서 개별적으로 프로그램을 지속시키도록 도와준다.

⑤ 공동체 워크샵 : 청년, 어린이, 성인공동체, 교회, 부모 등 다양한 그룹

6) 프로그램

① 기초프로그램 (3일) : 비폭력과 관련된 다양한 기술과 의견들을 전수받는다. 적극적 청취능력, 윈-윈을 위한 협상, 폭력적 상황에서 어떻게 재빨리 올바르게 사고할 것인가 등에 대해 연습한다. 한편 폭력과 비폭력을 알아보고, 폭력의 근원 조사, 어떤 행동들이 분쟁을 일으키고 반대로 어떤 행동들이 분쟁을 수그러지게 하는지 알아본다.

② 고급 프로그램 (3일) : 기초편에서 배운 기술과 생각들을 보다 심각한 주제를 가지고 그룹을 나누어 진행한다. 여기서 다루지는 주제는 분노, 의사소통, 협동, 경제정의, 동성애 혐오, 인종차별주의, 성차별주의 등 갈등과 정의의 상이한 측면에 대해 조명한다. 이러한 주제들을 심화하는 과정에서 참여자 그룹은 하나로 묶여지고 공동체를 형성하게 된다. 따라서 공동체로서 함께 일하는 것을 배우면서 학교 등 공동체 안에서 폭력과 괴롭힘 등이 사라지게 된다.

7) HIPP 매뉴얼

① HIPP 진행자들은 쉽게 구성된 매뉴얼을 활용할 수 있다. 이 자료집에는 그룹형성, 장소선택, 기금마련, 워크샵 진행 지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매뉴얼에 제안하는 공식적 워크샵진행은 3일간의 워크샵으로 회의 6회 각 2-3시간씩 이루어진다.

② HIPP 연결고리 : 한 질문에 참여자 모두가 대답하여 그룹을 모으고, 이들이 집중하도록 도와주는 훈련, 워크샵의 주제와 관련된다.

③ 워크샵 의제 개관

④ 정서교양훈련 A : 경쟁적이지 않고 재미있게 그룹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준다. 사람들의 활동력의 정도에 따라 나누고, 진행자는 나누어진 사람들이 그룹 내에서 어느 정도 활동할 것인지에 따라 훈련과제를 정한다.

⑤ 핵심훈련 A : win-win 협상 훈련(2회 정도), 이를 성찰하고 정리하는 시간. 어떻게 일상에서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토의 등

- ⑥ 정서고양훈련 B
- ⑦ 핵심훈련 B
- ⑧ 평가
- ⑨ 워크샵 마침

8) HIPPI의 비폭력 원칙 (워크샵의 둘째 날 정도에 소개된다. 이 원칙들이 개인적 차원과 비폭력 사회변혁 운동 차원에서 어떻게 활용되는가의 사례를 소개한다.)

- ① 갈등하는 당사자들의 공통적인 점들을 살펴봄으로써 갈등을 풀려고 노력한다.
- ②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긍정적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서 배울 점을 찾는다.
- ③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다른 사람의 입장을 듣고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 ④ 진실을 찾기 위해 노력한다. 거짓에 의존한 입장은 절대로 지속되지 못한다.
- ⑤ 자신이 주장하는 바가 공평하지 못함을 알게되면 입장을 바꾼다.
- ⑥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명확하게 아는 것은 용기 있고 힘있는 방식으로 행동하게 되는 원동력이다.
- ⑦ 언제나 위험을 피하려고만 하지 않는다. 만약 위험을 피할 수 없다면 폭력보다는 창의적으로 위험을 맞는다.
- ⑧ 놀라움과 유머감각은 갈등 상황에서 사람들의 태도와 행동, 상황을 바꾸는 데 도움을 준다.
- ⑨ 언제 행동하고 포기해야 하는지에 대한 자신의 내적 마음을 믿는다.
- ⑩ 불의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
- ⑪ 불의를 해결하는 데 인내심을 갖는다.
- ⑫ 정직, 존경, 보살핌에 바탕을 둔 공동체를 형성하도록 돕는다.

9) HIPPI 성공적인 이유

① HIPP은 진지하고 집중적인 성찰을 생기를 주는 재미있는 활동과 결합시켜 조화를 이룸으로서 사람들을 참여도를 높일 수 있다. 참여자들의 경험으로부터 출발하여 구체적인 세계의 현실의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술/기법을 가르치는데, 이것은 참석자의 요구에 대한 인식을 강화시켜 중오를 줄이고 각기 다른 사회 그룹간의 차이에 대한 이해를 증대시킨다.

② 대화에 기반한 공동체를 건설하고 참석자가 각자를 창조적 변화를 위한 가치있는 자원으로 인식하도록 격려한다. HIPP은 또한 적절하게 채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그것은 진행자가 참여자와 그들이 속해있는 공동체의 요구에 응답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발전된다.

2. 이스라엘

2-1. NS/WAS 평화학교

이스라엘의 학교의 평화교육 프로그램으로 가장 대표적인 이스라엘-아랍평화센터(NS/WAS) 평화학교(school for peace)의 대면 프로그램²⁾이다. 이 프로그램은 유대-아랍인 참석자들이 동수로 참석하여 두 언어를 사용하며 유대-아랍인 전문 진행자에 의해 진행되는 집단감수성훈련과 공존훈련이다. 참석자들은 훈련프로그램을 통해 억압자와 피억압자로서의 관계를 인식하고 자신들의 고정된 정체성을 객관화하면서 이를 보다 통합적인 것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기회를 얻고, 현실에 대한 바른 인식, 즉 정치의식을 형성하게 된다. 워크숍을 통해 억압과 피억압, 무력적 분쟁현실을 바라보는 다시금 경험함으로써 불평등한 관계의 변화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은 외부세계의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동기를 제공하게 된다.

NS/WAS란 평화의 오아시스(oasis for peace)라는 의미를 가진 히브리어 네베샬롬(neve shalom)과 아랍어 와하트 알-살람(wahat al-salam)을 한데 표현한 1972년 이스라엘에 사는 유대-아랍인들의 상호협력으로 세워진 마을로 예루살렘과 텔아비브 중간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이스라엘에는 아랍-유대인들이 섞

2) "Working with Conflict Groups: The Educational Approach of the School for Peace"
(<http://nswaw.com/sfp/updates>):

여 사는 마을이 여러 개 있지만, NS/WAS는 두 민족이 협동과 평등한 공존의 모델을 수립하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세운 마을이다. NS/WAS 설립자의 신념은 두 민족의 가까운 협조는 역사적으로 필연적일 뿐 아니라, 양쪽에 모두 이익이 된다는 것이었다.

두 민족공동체, 즉 유대-아랍인 사이의 창조적 협조를 성사시키기 위한 노력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공동체의 선구적 교육시설로 “두 민족·두 언어”를 통한 교육체도가 바로 평화학교(school for peace)다. 평화학교는 1979년 설립되어 NS/WAS의 정신에 따라 아랍-유대인의 만남을 위한 다양한 공존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평화학교의 비전은 인도적, 평등적, 정의로운 사회이며, 그 교육의 목표는 대면 프로그램(encounter program)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갈등과 그 안에서 자신들의 역할을 인식하도록 도와주고,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탐색하고 발전시키도록 하는 것이다.

평화학교는 모든 면에서, 즉 양적·질적으로 평등성을 추구한다. 교육프로그램 실무자는 유대인-아랍인 같은 수로, 이들은 모두 행동과학, 인문학 수학, 갈등상황에 있는 그룹의 활동을 촉진시키는 특수한 훈련을 수료한 사람들이다. 이 학교의 교장 역시 유대인-아랍인이 번갈아 맡는다. 또 모든 대면 프로그램은 유대인-아랍인에 의해 공동으로 진행된다. 그 목적은 바로 평등한 접근이고 여기에는 한쪽이 다른 한쪽을 이해하는 능력에는 자연히 한계가 있다는 전제가 놓여져 있다.

평화학교의 설립 이후, 25,000명 이상의 아랍-유대인이 다양한 활동에 참여했는데,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유대인-아랍인 대면 프로그램과 유니내셔널(uninational program: 특정한 한 나라의 문화적 특성에 소속하지 않는 프로그램)이다. 이 대면 프로그램에 참여자는 고등학생, 교사, 대학생, 언론인, 변호사, 교육·심리치료 전문가, 일반 시민 등 다양하다. 또한 대면 프로그램은 이제 NS/WAS와 이스라엘 전역에서 실시된다. 이스라엘의 유수한 대학에서도 평화학교와의 협력으로 그룹이론의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아랍-유대인의 갈등을 탐구하는 집단이 활동하고 있다. 또한 이스라엘과 팔레스틴 당국과의 평화협상이 시작된 이래, 팔레스틴 지역의 조직과도 협동으로 프로그램을 진행을 시도하고 있다.

현재 평화학교의 대면활동의 목적은 단순히 유대인 - 아랍인을 한데 모으거나

상대방에 대한 고정관념을 줄이는 것이 아니다. 대면활동의 중심목표는 참여자들의 사회적-정치적 의식을 개발하고 참여자들이 갈등 속에서 자신들의 입장과 위치를 확인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즉 참여자들이 현실을 이해할 수 있는 정보에 기초하여 갈등에 대한 자신들의 의견을 보다 구체화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집단 활동에서 자신의 집단에 대한 소속감과 정체성을 드러내고, 여기서부터 갈등상황과 문제를 참여자들의 대화에 핵심으로 끌어들이는다.

1) NS/WAS 대면 프로그램의 기본전제

① 집단 활동의 본질은 개인간의 만남이 아닌, 두 민족 집단 간의 만남이다. 따라서 개입의 초점을 두 집단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둔다. 여기서 개인은 자기 민족 집단의 대표로 간주된다.

② 대면이 이루어지는 작은 집단은 외부에 존재하는 현실의 축소판으로, 힘이 약한 소수집단에 대한 다수집단의 지배를 나타내는 과정은 전체 사회에서 병렬적으로 나타나는 과정으로 받아들여진다.

③ 대면은 외부세계의 현실에서 유리되어 발생하지 않는다. 집단에서 발생하는 것과 그 바깥에서 발생하는 것 사이에 상호작용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외부의 영향을 집단과정에 연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④ 이런 작업은 참여자와 진행자(facilitator) 모두에게 어려운 과정이라고 한다. 갈등이 집단프로그램의 진행에 중심적 경험이 되고, 이것이 긴장, 분노, 좌절을 낳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현실이며, 여기서 초점은 참석자들이 현실에 노출되어 대처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대면을 통해 참석자들이 가슴속에 지니고 있으면서도 일상의 생활에서 대개는 억누르고 있는 전제와 입장에 직면하여 이를 다시금 생각해보도록 한다.

2) NS/WAS 대면 프로그램의 4단계

① NS/WAS 대면 프로그램의 오랜 경험은 두 집단의 대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전형적 과정을 발견하게 해 주었다. 이것은 이스라엘 안에서 유대인-아랍 관계를 보여주는 것으로, 이러한 전형적 과정을 확인하고 이해하는 것은 미래에 두 민족의 관계의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공할 것으로 평가된다.

② 1단계 : 두 민족의 갈등에 관련된 모든 것을 조심스럽게 피함으로써, 참

여자들은 상대방 그룹과의 만남에서 상쾌하고 예의바른 분위기를 유지한다. 여기서 유대인 그룹이 토론을 위한 의제를 설정하고 만남의 역학관계를 쥐고 있다. 이 단계는 일상의 생활에서 두 민족들 사이의 관계가 지속되는 것을 나타낸다.

③ 2단계 : 아랍 그룹이 자신들이 박탈당하고 억압당한 이야기, 이스라엘 사회에서 오늘날 차별 당하고 있는 경험을 드러내고 말한다. 이 단계에서 분위기가 긴장된다. 첫 단계에서 경험된 두 집단 사이의 부드러운 관계는 이제 위협에 처한다. 아랍인들은 피해자로서 도덕적으로 유리하므로, 처음에는 자신들에게 가해진 고통의 원인에 대한 합리화를 발견함으로써 관용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분위기가 강해지면서, 유대인들은 아랍인들의 경험의 출처가 믿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같은 사건에 대한 유대인의 다른 해석으로 맞선다.

④ 3단계 : 유대인 그룹은 국가안보라는 문제를 제기한다. 이들은 아랍집단의 열등한 도덕적 가치를 묘사하면서 비난한다. 이들은 아랍집단과 희생자의 자리를 두고 경쟁한다. 즉 유대인 역시 역사의 희생자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 단계는 침울하고 비관적인 분위기로 특징지어진다. 엄청난 분노와 좌절감이 표출된다. 한 방에 함께 모여있는 것도 참기 어려워진다. 유대인 집단은 사실상 이전의 통제자의 위치를 회복하려고 하나, 아랍인 집단 또한 양보를 거부한다. 그러나 분위기가 안정되면, 보다 새롭고 평등한 관계에 대한 가능성이 두 집단 사이에서 형성될 수 있다.

⑤ 4단계 : 유대인 그룹은 토론현장에서 평등함이 자신들에게도 더 큰 이익을 주게 된다는 것을 느끼면서, 이전에 자신들이 누렸던 힘의 일부를 양보하고자 하는 자신들을 발견하게 된다. 그들은 아랍인들도 합법적 권리를 가진 하나의 민족그룹으로 인정하게 된다. 이후의 대화는 보다 평등해진다. 화해의 분위기가 형성되어, 참석자들이 자신들의 말과 행동 이면의 동기와 그 의미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자기반성하게 한다. 토론장에서는 보다 평등한 관계가 형성되었지만, 참석자들이 또한 위크숍을 통해 일어난 어떤 것들도 외부 현실 속의 두 민족의 지극히 불평등한 관계를 바꾸지 못할 것이라는 것도 예리하게 깨닫고 있다는 점도 지적된다.

2-2. NS/WAS 평화학교의 학교의 평화교육 프로그램

1) 성인 대면 프로그램 (Adult Encounter Program)

- ①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의 만남 프로그램으로 교사들의 대면 프로그램이 가장 중요하다. 그 사례로 역사교사, 시민사회 교사들의 만남이 대표적이다.
- ② 목적 : '역사와 시민사회'를 가르치는 유대인, 팔레스틴 교사들을 훈련하여, 학교에서 갈등을 다루고, 교사와 두 민족 사이의 교육 분야에서 관계를 형성하고 대화 촉진한다.
- ③ 과정의 종류
- ④ 이스라엘 학교에 근무하는 유대인 - 팔레스틴인 교사들을 위한 과정
- ⑤ 이스라엘 학교의 유대인 교사들과 팔레스틴 학교의 팔레스틴 교사들을 위한 과정

2) 기타 성인 프로그램

- ① 대학생들의 주말 대면 프로그램
- ② 일반 시민들의 대면 프로그램
- ③ 지역 대학생들을 위한 과정
- ④ 교사들을 위한 현장연수교육
- ⑤ 지역위원회, 이웃, 마을의 공동체 지도자들을 위한 워크샵
- ⑥ 유대인-아랍인들이 함께 일하는 작업장, 조직을 위한 워크샵

3) 팔레스틴인 - 유대인 프로그램

- ① 오슬로 협정에 의하여, 평화학교는 이스라엘 - 팔레스틴의 평화과정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팔레스틴에서 온 팔레스틴인들과 이스라엘인들의 모임을 진행한다.
- ② 모든 프로그램은 팔레스틴 조직들의 도움으로 진행되는데, 이 조직들은 프로그램에의 참여를 장려하고, 팔레스틴 참여자들을 추천한다.
- ③ 프로그램
 - 대학생, 고등학생, 언론인, 법률관련인, 교사, 대학 강사들의 만남
 - 전문진행자 훈련

- 여성전문진행자 훈련
- 역사, 시민생활 교사 훈련과정
- 변호사를 위한 중재과정
-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서 온 팔레스타인인들의 만남

4) 전문진행자 훈련과정

① 목적 : '대면 워크샵' 진행을 위한 남녀 전문가 훈련으로 졸업생 일부는 평화학교에서 일하거나 다른 기관에서 일한다. 1년 과정으로 유대인-아랍인 동수가 훈련을 받는다.

② 과정 : 대화의 경험, 이론 강의, 훈련 강의, 훈련 기법, 실전

5) 변화하는 시기 속의 여성

① 여성의 지위를 진전, 향상시킬 지도력 훈련으로, 1996년에 텔아비브 대학 사회사업학과와 함께 시작하였다. 매해 가난한 지역의 유대인-아랍 여성 50명씩 입학하고 있다.

② 한 학기 과정

- 이론자료의 제시 : 여성의 지위, 성별과 사회적 정체성의 발달, 여성과 정치 등의 주제로 1주일간 함께 학습한다.
- 전체그룹 토의 : 이론과 참여자들의 삶의 경험을 연결시킨다.
- 두 민족 그룹 분과: 유대-아랍 참여자 만남, 유대-아랍 갈등에 초점을 둔다.

③ 해외활동

- 해외 갈등지역 그룹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
- 북아일랜드, 사이프러스 등 분쟁지역의 조직, 기구와 협력하여 프로그램 진행하는데 여기서 대면훈련 등의 경험을 공유한다.
- 그 외 다양한 활동과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다.

6) 카운셀링과 훈련

평화학교는 현재 갈등그룹 훈련 워크샵에 가장 선도적 센터로 인정되고 있어 비슷한 일을 하는 단체들의 부탁으로 상담, 실무자 훈련 등 지원하고 있다.

3. 독일

독일의 경우 통일되기 이전까지 서독이 해온 주된 교육은 평화교육(Friedenserziehung)이었다. 서구에서 70-80년대 활발히 진행되어온 평화교육의 범주는 매우 넓다. 흔히 그 범주를 10가지로 정리하는데, 갈등문제/평화문제/전쟁문제/핵문제/정의문제/권력문제/성문제/인종문제/생태학적 문제/미래에 관한 문제가 바로 그것이다. 이런 평화교육의 10가지 주제와 병행하여, 때로는 평화교육의 틀 내에서 혹은 그 바깥에서 독자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으로 세계연구, 개발교육, 정치교육, 반인종·反성차별교육, 환경교육, 공동체교육 등이 있다.³⁾

3-1. 성인교육(Erwachsenenbildung)으로서의 학교외 평화교육

평화라는 주제는 학교교육에서보다 학교외 교육, 즉 성인교육에서 더 오래 전부터 다루어져 왔다. 시민운동단체들이 비정규적으로 제공하는 성인교육프로그램에서 평화, 반전, 제3세계와 같은 주제들은 - 환경운동단체들이 환경교육의 주제들을 이슈화했던 것처럼 - 성인교육 프로그램에서 중요한 영역으로 간주되어 왔다. 성인교육에서의 평화교육은 두 가지 방향으로 분류된다. 첫째로 들 수 있는 것은 다양한 성인교육기관에서 시행한 평화교육이다.

독일 공공성인교육기관의 핵이라고 불리는 시민대학(VHS), 종교단체의 아카데미와 정당 산하의 정치재단의 교육아카데미는 제3세계와 유럽의 평화, 세계의 평화, 인권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다루어왔다. 독일의 시민대학에서는 정치교육, 철학, 교육학, 심리학의 영역에서 전쟁과 평화, 전쟁과 연대, 인권 등의 주제를 다루어왔다. 최근에는 구조적 폭력과 같은 테마이외에도 개인적 평화, 즉 개인의 내면적인 평화에 대한 관심이 점차 고조되고 있다. 특히 독일의 개신교, 카톨릭 아카데미와 정당 산하 정치재단의 교육아카데미들은 평화에 대한 담론을 주도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제1세계와 제3세계의 평화적 공존을 강조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아왔다.

3) Jorg Raach, *Ost-West Konflikt und Entspannungspolitik in der politischen Erwachsenenbildung*, Redaktion Rainer Steinweg, *Vom Krieg der Erwachsenen gegen die Kinder*, (Frankfurt am Main, 1984), pp.268-269.

이 밖에도 노동조합의 성인교육 프로그램에서도 평화교육은 매우 중요한 주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학교교육이 평화와 폭력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고 평화적인 공존에 대한 인식능력과 행위능력을 배양하는데 초점을 둔다고 한다면, 성인교육은 비평화적 상황에 대한 판단력을 길러주어 평화와 관련된 사회적 담론을 형성하는 도움을 준다고 할 수 있다. 프로그램은 대체로 현재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단계로 시작하여 현상발생의 원인에 대한 분석의 단계를 거쳐, 문제해결의 방안들을 실천하는 과정으로 구성되었다. 성인교육기관을 중심으로 한 평화교육은 일회성 세미나와 공동의 관심을 갖는 사람들 간의 학습조직의 형태로 실시되어 왔다.

둘째로 시민운동단체들이 주도해온 평화교육은 다분히 정치적인 이슈들을 상황에 따라 재빨리 하나의 주제로 부각시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시민운동단체들의 평화교육은 “운동(aktion)을 통한 학습화”라고 하는 독특한 방식을 취하고 있다. 즉 시민운동단체들의 평화교육은 사건과 현상에 대한 인식을 제공하는 것뿐 만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까지를 요구하는 매우 실천적인 성향을 띄고 있다. 최근에는 평화운동이 주춤하는 단계에 있어 시민운동단체들의 평화교육도 정체상태에 있다.

3-2. 교사교육(Lehrerfortbildung)으로서의 학교의 평화교육

현재 교사교육에서 평화교육은 교과영역을 초월하여 매우 중요한 주제영역이다. 그 이유는 독일의 학교에서는 내국인들의 자녀수는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 외국인 노동자의 자녀수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타문화, 특히 이주자 중 가장 많은 사람들이 소속된 이슬람문화에 대한 이해는 교사자질의 기초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사회과 분야 교사교육에서는 독일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회적 폭력의 문제 때문에 비폭력 및 관용, 갈등중재 등의 주제들이 매우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교사들에 대한 재교육에 있어 간문화간(間文化間) 이해교육과 비폭력 평화교육은 매우 중요한 주제이다. 교사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각 주의 교육연구소들은 거의 모두가 비폭력 평화적 행위능력의 전달이 프로그램의 중요한 주제로 채택하고 있다. 노르트라인 - 베스트팔렌주의 교사교육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⁴⁾

- 브룬디에서의 갈등중재에 대한 국회의 결정
- 갈등과 전쟁으로부터의 학습: 시민적 갈등중재를 위한 논의
- 갈등처리에의 구성적 접근
- 민족적 갈등에 대한 분석 (사례연구: 소말리아)
- 폭력예방과 평화정착
- UNO와 평화를 위한 아젠다
- 시민적 중재와 군사적 중재의 역할분담
- 국가사회에서의 비정부조직
- 인도주의적 개입 (사례연구: 소말리아)
- 인권유린으로부터의 보호
- 망명자정착촌에서의 경험
- 선거감시 (사례연구: 남아프리카공화국)
- 위기에 처한 인물에 대한 보호 (사례연구: 과테말라)
- 협상기법 (하버드컨셉) 및 적용
- 갈등중재
- 성공적인 중재
- 다른 문화 속에서의 전통적인 갈등중재
- 문제 있는 국제적 제재 (사례: 남아프리카공화국, 이라크, 유고연방국들)
- 소비자저항 (반핵운동)
- 국제사법판결과 전범
- 인도적 도움 (사례연구: 루안다)
- 시민운동의 온라인 네트워크
- 평화를 위한 국제적 파트너쉽

최근의 교사교육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교사교육의 내용이 결과적으로 학교 교육에 적용된다고 할 때 최근의 학교 평화교육의 내용은 매우 많이 발전된

4) Landesinstitut für Schule und Weiterbildung, *Zivile Konfliktbearbeitung in der Einen Welt*, Tübingen, 1996.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아울러 이 교사교육의 내용들은 주제별로 각각의 모듈로 구성이 되어 있어 교사가 수업시간에 적용하기에 좋게 만들어져 있다.

이와 더불어 평화교육과 관련하여 교사교육에서는 요즈음 독일에서는 흥미 있는 교육방법을 사용하거나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교재들이 많이 개발·보급되고 있다. 대체로 평화교육 교재들은 주 정부 산하 교육연구소에 의해서 만들어지거나 평화교육협회와 같은 민간평화교육연구소, 그리고 학교교육과 학교외 청소년교육 및 성인교육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들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다.

교재의 주제는 비폭력행위를 훈련하는 프로그램, 학교와 청소년사업에 있어서 청소년들 간의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증재하는 프로그램, 사회 속에서 민주적인 사회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타인과 다른 문화에 대한 존경과 관용심을 길러주는 프로그램, 그리고 민주적인 토론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이 교재들의 특징은 강의위주가 아닌 집단토론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이다.

이러한 교재들은 다양한 민주시민교육방법들로 구성되어 있고 교육을 실시하는 사람들에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매뉴얼 형식으로 개발되어 있다. 최근에는 이러한 교재들이 멀티미디어를 활용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CD-ROM이 교재와 함께 보급되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에 만들어진 '글로벌 학습'의 2001년 버전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쉽게 평화교육을 전달할 수 있도록 교사들을 위해 만들어졌다. '글로벌 학습'이라는 CD-ROM에 들어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⁵⁾

- 하나의 세계 속에서의 삶
- 모든 세계에서의 삶의 역사
- 세계화: 세계화의 관점과 결과들
- 세계적인 위협들
- 세계에 대한 위협
- 미래경영능력
- 사회적인 지각: 어떻게 지각은 우리의 생각과 행위를 통제하는가?

5) Verein für Friedenspädagogik e.V., *Global Lernen. Lernen in Zeiten der Globalisierung*, Tübingen, 2001.

- 지도로서의 세계
- 그림으로서의 세계
- 세계여행: 만남을 통한 학습, 여행, 청소년교환, 파트너쉽
- 네트의 세계: 컴퓨터놀이를 통한 세계의 만남
- TV 속에서의 세계
- 세계의 놀이와 열정
- 세계적인 행위

3-3. 자원봉사자교육으로서의 학교의 평화교육

독일의 학교의 평화교육은 1970, 80년대의 평화운동(Friedensbewegung)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독일에서는 평화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단체들의 현장운동가들에 대한 교육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자원봉사로 일하는 평화운동실천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활발하다. 이러한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는 현장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이 지속적으로 지식과 교육방법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현재 독일에서 이러한 사업을 하는 선두주자로는 협력재단(stiftung MITARBEIT)이 있다. 이 재단은 민주주의의 발전을 밑으로부터 촉진시키기 위하여 1963년에 설립된 공익재단이다. 협력재단은 현재 다양한 분야에서의 자조활동(selbsthilfeaktivitat)과 시민참여를 지원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협력재단은 민주시민교육일반에 관한 출판과 홍보, 이 분야에서 활동하는 시민활동가들을 대상으로 계속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정보제공을 하고 있다.

협력재단은 2000년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활동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 사회방어연합(Bund für Soziale Verteidigung: BSV)과 함께 개발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 5일간의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비폭력적인 행위를 하도록 도울 것인가라는 화두로부터 시작되었다. 이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청소년분야의 자원봉사자들은 건설적인 갈등해결의 길(wege konstruktive konfliktlosungen)이라는 3시간 또는 1일짜리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자원봉사자교육은 대단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15명 정도의 참가자들의 참여에 의해 이루어지는 집중교육이다.

3-4. 평화교육연구개발

현재 독일에서는 평화교육에 대한 연구와 관련하여 세 분야의 움직임이 있다. 우선 평화교육의 기본개념과 방향에 관한 연구는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평화교육 전공 교수들을 위한 교수직은 없지만 대학의 개별교수들이 평화교육(friedenserziehung), 인권교육(menschenrechterziehung)이라는 강좌들을 각 대학별로 개설하고 있으며 수강하는 학생들도 적지 않다. 이 과목들은 대체로 교육학과에서 많이 개설하고 있으나, 평화교육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정치학 및 사회학과 교수들에 의해서도 상당수 개설되고 있다.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평화교육강의와 세미나들은 주로 평화교육의 기본방향과 개념에 관한 논의들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비평화의 구체적 사례들에 대한 분석이 다루어지고 있다.

둘째로 평화교육에 대한 연구만을 수행하는 대학바깥의 연구기관들이 있다. 독일에서는 대체로 평화재단(Friedens-Stiftung)에서 평화문제에 관한 연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독일에서 평화교육만을 연구하는 연구기관으로 가장 많이 알려진 곳이 튀빙겐에 있는 평화교육협회(Verein für Friedenspädagogik Thubingen e.V)이다. 이 기관은 UNESCO로부터 상을 수상한 유럽에서도 평화교육 전문연구기관으로 지명도가 매우 높다. 이 협회는 평화문제를 다루기 위해 설립된 재단에 의해 지원을 받고 있는데 현재 상근 연구자는 세 명이며 프로젝트단위의 연구자들도 다수 있다.

평화교육협회에서는 학교폭력이라는 한정된 주제보다는 세계의 평화적 질서, 그리고 독일 내에서의 비폭력/관용과 관련된 주제에 관한 교육적 접근을 시도하며, 각각의 주제들이 학교에서 그리고 학교 외 청소년교육 및 성인교육 현장에서 흥미 있게 다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법론적 도구들을 제공하고 있다. 평화교육협회는 홈페이지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평화교육의 내용 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셋째로 학교에서의 평화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주정부산하에 있는 교육연구소(pädagogisches Landesinstitut)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재 이 분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곳이 노르드라인 - 베스트팔렌주의 주 정부 산하 교육연구소이다. 최근에 이 연구소에서는 평화교육협회와 더불어 글로벌 학습(global lernen)이라고 하는 평화교육기본교재(CD-ROM포함)를 개

발하여 각급 학교에서 평화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에게 보급하고 있다.

동독지역의 주 정부 산하 교육연구소는 평화교육과 관련하여 동독지역에서 특히 문제시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폭력과 인종주의, 극우집단테러의 문제에 대한 집중적인 계몽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 현재 브란덴부르크주의 교육연구소에서는 과거 동독지역 특유의 폭력문제에 대한 교사와 학교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Ⅲ. 사례의 교훈과 시사

이상에서 미국 AFSC의 HIPP 프로그램, 이스라엘과 아랍의 대면프로그램을 통한 공존훈련, 독일의 학교의 평화교육을 살펴보았다. 이 평화교육프로그램들은 각 지역의 분쟁과 갈등의 현실에서 오랜 기간 동안 실험되어 현재의 모습으로 발전된 것들이다. 위 프로그램들의 공통점은 아래와 같다.

미국, 이스라엘, 독일의 학교의 평화교육은 전반적으로 국가에 의해 주도되기보다는 먼저 민간 영역의 지역 평화운동단체 혹은 학부모집단들에 의해 다양하게 시도되다가 점차 중앙정부의 프로그램으로 수용되었다. 이러한 민간영역의 지속적 노력이 없었다면, 학교의 평화교육의 정착은 더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것이다. 미국, 이스라엘, 독일의 학교의 평화교육은 지역사회 주민, 교회, 청년, 학생, 여성, 장년, 노인층 모두가 참여하는 계속교육, 평생교육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학생, 청년, 교사, 여성, 어린이, 다양한 직업인 등이 평생 동안에 걸쳐서 갈등의 평화적이고 건설적이며 창조적 해결을 훈련하고 습득함으로써 평화로운 사회와 공동체건설을 지향하고 있다. 따라서 평화교육은 모든 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평생학습의 성격을 띠고 있다.

미국, 이스라엘, 독일의 학교의 평화교육은 단순한 지식전달 차원에서 벗어나 학습자들의 적극적 참여가 전제되는 개방교육의 형태를 띠고 있다. 그 방식에 있어서도 강의 중심이 아닌 함께 참여하는 토론형태의 참여교육이다. 평화교육의 목표는 지식전달이 아니라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가치와 태도를 훈련하고 습득하는 것이라 하겠는데, 이는 학습자들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자신을 개방하고 감수성을 훈련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교육이 이루어지

는 과정과 그 결과는 아주 창조적이고, 여기에 평화교육의 교육학적 특징이 전형적으로 드러난다. 이러한 학습자 중심의 참여교육을 위해서는 교사의 역할이 기존의 지식전달자에서 학습자의 창의력을 일깨워주는 전문인으로서의 역할이 전환되고 있다. 따라서 평화교육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지속적인 훈련이 필요하다.

평화교육의 중심 내용은 '다름과의 공존' 즉 이질성의 수용을 통한 공생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정체성 문제인데, 적대감을 줄어나가고 '다름'을 인정하기 위해 '단일정체성'에서 '다중적 정체성'을 지향하고 있다. 편견 줄이기, 고정관념의 극복 등을 통한 적대감 줄이기, 억압자와 피억압자의 내면화된 정체성 극복 등을 지향하는 이스라엘-아랍평화센터의 '대면프로그램' 역시 상대방의 있는 그대로의 존재를 인정하는데서 그 만남이 출발한다. 미국, 이스라엘, 독일의 학교의 평화교육은 갈등하는 당사자들이 직접적으로 대면하면서 이루어지고 있다. 학교의 평화교육은 과거 적대적이었던 갈등당사자들이 직접적으로 대면하여 공동의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교육에 참여함으로써 서로에 대한 적대감과 편견을 줄어나가고 이를 통해 상대방을 인정하고 더불어 살아갈 기반을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직접적인 대면과 만남에 학습자가 직접 참여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평화교육의 특징이고 여기서 창조적 대안이 만들어지고 있다.

참 고 문 헌

- 고병헌, "실천적 평화교육을 위한 철학적 기초", 『여성과 평화』 1집, 2000.
 김신일 외, 『지구촌시대의 국제이해교육 프로그램』, 한국국제이해교육학회, 2000.
 데이비드 힉스, 『평화교육의 이론과 실천』, 고병헌 옮김, 서울: 서원, 1993.
 정영수, "독일 학교교육에서의 평화교육", 『한독교육학연구』, 제6권 제1호, 1998.
 카렌 리, "평화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접근과 AFSC의 평화교육", 『21세기 한반도 평화·통일교육 방법론과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국제심포지움 자료집』,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주최, 2000. 11.

Agbaria, Farha, Cohen, Cynthia, with Marci McPhee (2000), Working With

Groups in Conflict :The Impact of Power Relations on the Dynamics of the Groups, The Brandis Initiative in Intercommunal Coexistence, Brandis University.

American Friend Service Committee (1999), Help Increase the Peace : Program Mannual. (2nd Edition), Baltimore.

Gugel, G. (1999). Wir werden nicht weichen. Erfahrung mit Gewaltfreiheit. Tübingen.

Halabi, Rabah. "Working with Conflict Groups: The Educational Approach of the School for Peace" (<http://nswaw.com/sfp/updates>).

Richardson, Norman L. (1997), "Education for Mutual Understanding and Cultural Heritage", from CAIN Web Service

Smith, Alan (1999), "Education and the Peace Process in Northern Ireland", from CAIN Web Service

네베 살롬/와핫 알-살람 (이스라엘-아랍 평화학교) <http://nswas.com>

미국친우봉사회(AFSC) www.afsc.org

아태평화재단 <http://www.kdjpf.or.kr/>